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1월 2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독감으로 인한 급성폐렴으로 생사의 기로에 처했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정희선 -

저는 지난 2월, 갑작스럽게 기침이 심해져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주일 새벽에 급히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은 아니었지만 폐렴 증상이 있어서 며칠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여 각종 주사와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고 식사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항생제와 치료약의 처방과 투여가 계속되는 중에 폐렴의 원인이 'A형 독감'이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더 독한 항생제를 투여 받으면서 치료에 힘썼으나 오히려 몸의 기력은 점점 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지 이틀 만에, 저는 자가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중에 혈압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심장 부정맥 증상까지 크게 나타났습니다. 산소호흡기만으로는 호흡이 되지 않아 결국 마지막 단계인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제 딸들에게 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삽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 절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심장, 간, 콩팥 등 모든 기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고, 신장투석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주치의 선생님이 그때 제 딸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딸들은 그 상황에서 저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간절하게 라파의 하나님을

양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긴급히 기도를 요청하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교구의 권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딸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학교에서도 저를 위한 기도제목을 공유하여 선생님들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야고보서 5:13~16) 할렐루야!

딸들은 매일 중환자실로 면회를 다녀오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를 치료하여 주시는 권능을 깊이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중환자실에 면회 온 둘째 날에는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적적인 의료진의 진단과 소견이 나왔고 간수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능력의 손길이 깊이 느껴지고 저의 상태가 호전됨에 감사하면서 딸들은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딸들은 그동안 안일했던 신앙생활과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엄마를 낳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세상 걱정에 얽매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깨달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신앙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정밀심전도검사 결과 부정맥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정도였고 신장의 염증수치도 조금씩 더 떨어져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폐와 심장의 기능이 매우 좋지 않아 오랜 동안 기도삽관에 의한 인공호흡을 해야 하고 기도절개를 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할 수도 있다는 처음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기도에 삽관한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채 2주도 안 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와 같은 기적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일반병실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체중이 38kg에 불과한 연약

한 몸 상태로 치료 과정을 잘 견디고 독한 약물들을 복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정맥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2박 3일간 혈뇨를 보고 빈혈이 생겼지만, 그러나 수혈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반병실에서도 가는 호스로 된 일반호흡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호흡기가 답답해서 빨리 빼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스스로 온전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상에 한 달이 넘게 누워있다 보니 다리의 근육이 많이 소실되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님의 권유로 재활과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방법이 저와 맞지 않아서 어지럼증과 구토가 심해 더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 힘으로 침상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부축을 받아 열심히 걷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 특히 수요일마다 교구 전도사님과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상에서도 우리 교회 휴대폰 앱으로 당회장 조 목사님의 말씀과 신유의 기도를 들으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건강을 회복하면 더욱 더 전도와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성도답게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할 수 있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저의 위급하고 중했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무한한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생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복음 전파와 교회의 덕을 위해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동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로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278(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생계로2(생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4단원 :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제24과) 예수님의 약속

- 본문 : 요한복음 16:5-15
- 요절 :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 찬송 : 177장(새찬송가 190장), 178장(새찬송가 197장)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는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매우 긴밀한 협조 가운데 사역하셨던 것처럼 또한 성도가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또한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명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 앞둔 시점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낙심 천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무런 마음의 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요 14:16)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견고케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복음의 모든 진리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도들은 성령의 힘으로 악한 세상에서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감람산에서의 약속과 계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4-5)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홀연히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대략 120명 가량 되었습니다. 이윽고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강림하시자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표적으로 온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가득차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외에도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연약했던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행 2:14-42). 더 이상 두려워 떨던 그들이 아니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또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행 7:57-60). 비단 이런 일들은 초대 교회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황제의 탄압으로 굶주린 사자떼 앞에 섰을 때에도, 중세 로마 카톨릭의 암흑 시기에, 그리고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2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충성된 모습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주심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를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여 구할 때에 처음과 동일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열심을 다해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도와주시며 환란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요 14:16). 원래 성령을 나타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하여 혹은 조언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은혜를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므로 성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며 지낼 적에도 곧잘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히려 더욱 열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결과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듯이 성령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선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